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구 수 경

(사)인본사회연구소 사무처장

영금영금 기어가는 거북이와의 달리기 경주에서 진 토끼를 보고 토끼처럼 실력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이 나서 약으로 쓰려던 토끼의 간. 거북의 땀에 빠져 바다로 가던 토끼가 육지에 간을 두고 왔다면 허풍을 떨어 위기를 모면했던 재치. 두 토끼 이야기는 아이가 글줄이나 읽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우화이고 설화이다. 토끼는 날이 밝아 만물이 잠에서 깨려는 순간, 새벽 5시에서 7시에 주로 활동한다. 이 시간을 묘시라 한다. 맹수의 활동이 적고, 이슬을 머금어 부드럽고 맛이 좋은 아침 풀을 먹을 수 있는 토끼의 꾀가 엿보인다. 토끼 묘(卯), 토끼 토(兔) 두 한자를 자세히 보면 위의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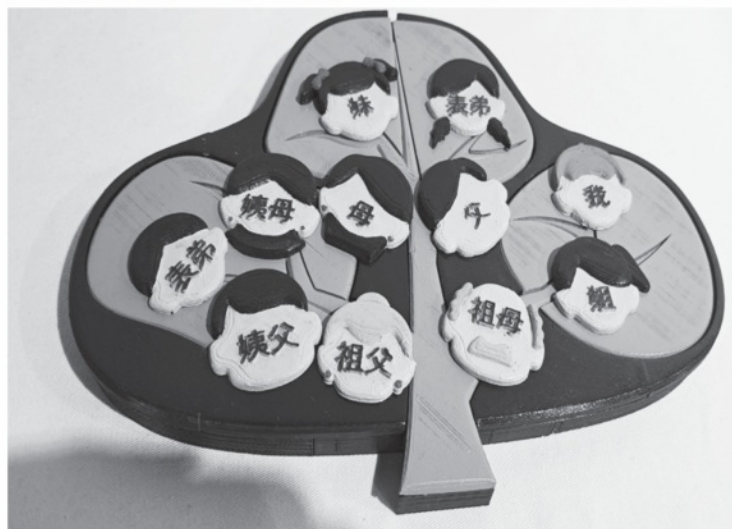
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이라도 어디로 튀어갈 듯
영리함을 나타내는 자세의 그림 같은 글자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는 2023년 10월, 방금 두 권
의 책을 출판하였다. 책은 바다 동물과 십이지 동물에 관련
된 한자문화와 역사를 술술 풀어놓고 있다. 피가 많은 토끼
띠인 나는 십이지 동물 중 토끼 부분만 토끼처럼 펼쳐보았
다. 세종대왕이 말을 할 때 소리의 구강 모양을 글자로 만들
었다는 한글도 놀랍고 신비스럽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뜻과 의미와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담긴 한자의 세계도 신
기하기 그지없다. 한자는 한 개의 글자 그 자체가 인문학의
세계였다.



부산에서 한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곳이 바로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이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명연구의 토대를 한자로 기준 삼았던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하영삼 교수가 2008년 한국한자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연구소는 동아시아 한자로드에 따른 소통疏通, 동인動因, 도향導港을 주제화하여 연구소가 한자문화 연구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언어학, 인문사회학, 인문학이 결합된 학제간 융복합 연구에 이른다.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는 중국, 일본에서 더 인지도가 높다.

이제 연구소는 지역인문학센터를 열었고, 한자의 세계는 생활 속에서 무궁무진 발견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자와 어린이’를 테마로 하였다. 한자가 배우기 어렵고 난해한 글



자가 아니고 너무나 재미있는 그림이 되는 글자임을 보여주었으며, 어린이들이 쉽게 한자의 역사를 알게 하고, 한자를 활용한 생활용품과 한자게임까지 개발한 것이다. 내년 2024년은 '한자와 외국인'을 주제로 할 예정이란다.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교에는 ‘한자문명 창의체험관’이 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한자의 세계를 둘러 볼 수 있었다.

한자는 오래된 글자이다. 그러므로 한자 자체의 문화적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 문화학자, 인류학자들이 함께 한자 고고학 연구를 수행하는가 하면, 한자연구소에서는 한문학이나 한자학 연구자뿐 아니라 국어학자, 일어학자, 베트남 어학자, 영어학자 등 언어학자들이 글자와 언어, 사회문화의 흐름에 대한 연구도 함께한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언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요즘은 핸드폰 문자나 톡(talk)으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SNS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ㅋㅋ”는 언어일까? 글자일까? 언어변화에 관한 학술연구에서 ‘ㅋㅋ’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고하였다. 글자는 글자에 녹아있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으며, 글자는 문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ㅋㅋ’는 글자이며 단어임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형태의 글자를 통해 관계를 이루고 소통한다. 현대 사회는 ‘세계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고, 전 세계인은 컴퓨터 창을 열면 지구 반대편의 친구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언어의 숫자는 점점 줄어 들고 있으며, 가깝게 부산시장은 영어 공용화 부산을 만들자고 한다. 한자는 고고학이 되고 한글은 그 먼 옛날의 언어로 남게 될까? 우리의 언어는 ㅋㅋ, ㅎㅎ, ㅠㅠ, ㅉㅉ로



통일될까?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를 다녀온 후 삶이, 말이,
언어가, 글자가 좀 더 조심스럽다. 나는 이 원고의 마지막
‘글자’로 ‘ㅍㅍ’를 쓰려 했다. **이복세상**